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 형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Media Literacy on the Formation of Smart Divide

이승민 (Seungmin Lee)*

초 록

이 연구는 스마트기기 이용이라는 맥락에서의 다변화하는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대부분의 요인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적, 사회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 평가 능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을 통한 정보적, 사회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심화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media literacy on the formation of the smart divide, which is a multi-faceted digital divide that occurs in the context of the use of smart devices. As a result, most of the factors of media literacy affect the establishment of social relations and social network through the use of smart devices, which, in turn, leads to the expansion of the range of informational and social activities. In addition, media literac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etence to evaluate the value of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the use of smart devices. Based on these results, there can be social disparity between those who have secured media literacy and those who do not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al and social benefits through the use of smart devices, which can function as a mechanism to generate the smart divide.

키워드: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격차, 스마트 디바이드, 스마트기기
media literacy, digital divide, smart divide, smart device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 논문접수일자: 2021년 5월 17일 ■ 최초심사일자: 2021년 6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21년 6월 11일
■ 정보관리학회지, 38(2), 19-38, 2021.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2.019>

* Copyright © 2021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기술의 발전 및 무선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보급은 네트워크, 정보, 미디어 기기, 콘텐츠 등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의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복합 미디어로서의 스마트기기의 보급은 사람들의 정보활동 방식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으며, 이제 스마트기기는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 표현, 전달, 활용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보활동과 스마트기기,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개념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는 사람들의 정보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스마트기기는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정보를 하나의 기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의 정보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무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반면 스마트기기는 복합적인 미디어이며,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기기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스마트기기를 통한 정보와 미디어의 융합 환경이 오히려 정보격차라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보격차는 컴퓨터의 보급과 함께 등장한 오래된 개념이지만, 정보기술의 진화와 함께 기

존의 접근 중심의 양적 정보격차는 활용 중심의 질적 정보격차로 복잡화되었으며, 현재와 같은 스마트기기 환경에서는 보다 다면적으로 세분화된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를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적 정보격차나 질적 정보격차에서는 미디어 기기의 소유와 접근을 위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스마트 디바이드에서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스마트 디바이드는 미디어로서의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의 차이로 부터 발생하는 정보적, 사회적 격차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생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정보격차 관련 연구들은 전통적인 양적 정보격차 및 질적 정보격차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는 정보격차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학의 관점에서 정보격차를 스마트 디바이드로 개념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를 형성하는 요인들과 스마트 디바이드를 형성하는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격차의 개념 진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보급은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연결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면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배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사회 분열적인 측면은 사회적 문제로서의 정보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격차는 1995년 New York Times의 저널리스트 Gary Andrew Pole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컴퓨터, 네트워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Molnar, 2002).

1990년대 후반 이후로 정보격차는 사회적인 현상이자 해결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정보격차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information-haves)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information-have-nots)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며, ICT를 보유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로도 설명할 수 있다(OECD, 2001, 4). 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보에 대한 접근의 격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격차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Houston & Erdelez, 2004, 19).

이러한 초창기의 정보격차는 ICT와 디지털 기기의 소유 및 이에 대한 접근이 주된 요인이었으며(Helbig, Gil-Garcia, & Ferro, 2009; Keniston, 2004),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컴퓨터 및 ICT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정보기기 활용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하였다(Attewell, 2001). 하지만 정보환경이 보다 복잡하게 진화하고 새로운 정보기기 및 미디어가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정보격차는 미디어의 활용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복잡한 구조의 정보격차로 계속해서 전환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연구에서는 정보격차를 ICT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적 정보격차와 이미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ICT를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적 정보격차로 구분하기도 하였다(Dewan & Riggins, 2005; Wei et al., 2010). 이와 관련해서 Kling(1998)은 ICT 인프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가용성에 중점을 두는 기술적인 측면과 정보기술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언급하는 사회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보격차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무선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기기 중심으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 유형과는 다른 보다 복잡화, 세분화된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진화하는 정보격차는 사람들의 정보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Park & Lee, 2015; van Dijk, 2005). 즉, ICT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사회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식정보의 감소, 경제적 불이익,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

키는 것으로 이어질수 있다(Choudrie, Weerakkody, & Jones, 2005; Rooksby, Weckert, & Lucas, 2002).

이를 종합해 보면, 정보격차는 디지털 기술 혹은 정보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적,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으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수준, 경제수준, 연령, 성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특히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 및 미디어 활용능력에 따라 분화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2.2 스마트 디바이드

초창기의 정보격차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의 차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면 이들 격차는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ICT가 급속히 발전하고 스마트기기가 보편적인 정보기기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보격차의 논점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복잡화하는 미디어의 이용 능력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다(이승민, 2020).

현재 스마트기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양적 정보격차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기기는 기존의 여러 정보기기가 독립적으로 수행하던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시킨 복합적인 미디어이며,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기기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정보의 입수와 활용

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스마트기기가 지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적, 사회적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접근이나 활용 중심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측면의 격차라고 볼 수 있으며, 기존의 정보격차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다면화된 스마트 디바이드(smart divide)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Lee(2016)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지적 격차 또는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질적 격차로 정의되고 있다(Lee, 2016, 262). Lee(2016)의 정의에 기반해서, Li, Chen, Wu(2020, 560)는 경제적 수준, 인종, 성별, 연령 및 거주지역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디지털 리터러시와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격차의 진화한 양상으로 스마트 디바이드를 설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스마트 디바이드는 현재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스마트기기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다면화된 정보격차이다. 특히 접근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의 스마트기기 보유 정도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입수한 정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서 발생하는 격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격차가 ICT를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었다면, 스마트 디바이드는 단순한 불편함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보적 격차로 확산되어 여러 가지 유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주윤경, 2018, 33). 따라서 스마트기기가 광범위

하게 보급되어 있는 현재의 사회에서 스마트 디바이드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는 다른 측면에서의 보다 심화된 접근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다변화되고 세분화된 정보격차로 스마트 디바이드를 정의하고자 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스마트기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발생하는 정보적, 사회적 격차이며, 넓은 의미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가는 정도에 따른 격차로 스마트 디바이드를 정의할 수 있다.

2.3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기술 및 정보 미디어의 급속한 진화와 함께, 미디어를 활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는 2000년대 이후 사람들의 사회적, 정보적 활동에서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Ritchie, 2011). 미디어 리터러시는 TV,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그 개념이 시작되었지만, 그 근간은 리터러시에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리터러시는 정보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송되었을 때 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Correia, 2002). 하지만 정보환경이 인쇄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 및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전통적인 리터러시의 개념 역시 전환이 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의 등장 및 보급과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으로 적용 범위가 보다 확장되

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통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는 인쇄 및 전자 미디어를 해석, 평가, 분석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Aufderheide & Firestone, 1993, 1). 또한 Baker(2004)는 인쇄 매체와 비인쇄 매체의 언어와 텍스트를 작성, 이해, 해석, 분석 및 감상하는 것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였으며, Potter(2010)는 매스미디어에 자신을 노출하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였다.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는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에 접근, 분석, 평가, 제작, 전달하는 능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2011, 1).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2002, 9)에서도 다양한 형식과 미디어로 정보를 분석, 접근, 관리, 통합, 평가 및 생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기기 및 정보 미디어의 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비판적인 사고력 및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Gilster, 1997; Hobbs, 2007).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미디어 유형이 보급되면서 점차 필수적인 역량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미디어 리

터러시는 궁극적으로는 미디어를 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며,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사회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넓게는 미디어에 접근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좁은 의미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표현, 전달되는 정보 및 콘텐츠의 가치를 해석, 분석, 평가, 활용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적인 미디어의 활용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활용능력에 따른 사회적, 정보적 격차를 유발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가 기존의 미디어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미디어 활용능력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로 이어질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정보활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이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이드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다변화하고 복잡화하는 스마트 디바이드의 현상을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3.1 변수 설정

초창기의 양적 정보격차에서부터 현재의 스마트 디바이드에 이르기까지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들은 계속해서 복잡화, 세분화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드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스마트 기기의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정보격차의 형성 요인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요인들이 현재의 스마트 디바이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 및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측면을 스마트 디바이드 형성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이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미디어 사용의 다양성,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 평가, 입수한 정보를 통한 창의적 생산 능력,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 형태의 다양성을 설정하였다(EAVI, 2008; Hallaq, 2016; Potter, 2010; Ritchie, 2011). 이들 요인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 표현되는 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며, 입수한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내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라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 기기의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스마트 기

기를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활용하는지는 사람들의 정보적, 사회적 활동 지원이라는 스마트 기기 활용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전통적 리터러시의 확장된 관점으로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의 미디어 기기 이용의 능숙도를 요인으로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소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스마트 디바이드와 관련한 요인으로는 Lee (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 요인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근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의 보유 여부 및 스마트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적 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기기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사용 정도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정도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정보적, 사회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스마트기기를 통한 다양한 활동의 범위 정도를 변인으로 추가하였다. 이들 요인들은 스마트 디바이드 형성에 있어서의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다.

3.2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항목은 앞서 언급한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기기 활용 및 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설정한 변수에 따라 총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설문조사는 2021년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20대 이상의 스마트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수행하였다. 20대 이상 이용자로 연구 대상을 한정된 이유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미디어 활용의 목적이 교과학습 중심 혹은 오락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편향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20대 이상의 스마트기기 이용자로 설문조사의 대상을 한정하였다.

구성한 설문지는 총 257부를 배포하여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7부를 제외한 250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스마트기기 활용,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설문항목에 대해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2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과 스마트 디바이드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들이 스마트 디바이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된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제외한 총 10개 항목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52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의 내적 일관성이 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설문항목 구성

구분	설문항목	설문문항 수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5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미디어 리터러시	PC,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는 미디어가 어느 정도로 다양한지의 수준	5
	미디어 기기를 이용해서 주로 활용하는 콘텐츠의 형태가 어느 정도 다양한지의 수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 혹은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	
	스마트기기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로 능숙하게 활용하는지의 수준	
스마트 디바이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보유 수	5
	스마트기기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수	
	정보의 활용을 위해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경우, 이들 기기나 미디어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 정도	
	정보의 활용 이외에,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사회활동에의 참여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정도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정보적, 문화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	

4. 분석 결과

4.1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N=250) 가운데 남성은 125명(50.0%), 여성은 125명(50.0%)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학력수준과 관련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총 151명(60.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거주지역은 특별시 및 광역시 등 대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175, 70.0%)(<표 2> 참조).

4.2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이용 사이의 상관관계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다양한 사회적, 정보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표 2〉 설문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성별	남성	125	50.00
	여성	125	50.00
	총계	250	100.0
연령	20세~29세	40	16.0
	30세~39세	81	32.4
	40세~49세	75	30.0
	50세~59세	40	16.0
	60세 이상	14	5.6
	총계	250	100.0
학력수준	고등학교 졸업	37	14.8
	전문대학 졸업	34	13.6
	대학 재학	13	5.2
	대학 졸업	151	60.4
	석사학위	12	4.8
	박사학위 이상	3	1.2
	총계	250	100.0
가계수입	2,000만원 미만	25	10.0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67	26.8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55	22.0
	6,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61	24.4
	8,000만원 이상	42	16.8
	총계	250	100.0
거주지역	대도시 거주	175	70.0
	중소도시 거주	60	24.0
	군·읍·면 단위 거주	15	6.0
	총계	250	100.0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활용능력과 스마트기기의 활용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의 활용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표 3〉 참조).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들과 스마

트 디바이드 형성 요인 사이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의 모든 요인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스마트기기는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정보적 활동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사회적 참여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디어

〈표 3〉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활용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미디어 다양성	정보의 가치평가	콘텐츠 생산능력	콘텐츠 다양성	미디어 기기 능숙도
스마트기기 접근성	Pearson 상관	.623**	.434**	.283**	.341**	.475**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Pearson 상관	.444**	.465**	.496**	.441**	.400**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활동 범위 확장	Pearson 상관	.421**	.383**	.289**	.386**	.37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스마트기기 보유	Pearson 상관	.330**	.330**	.272**	.365**	.307**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0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어플리케이션 활용 정도	Pearson 상관	.296**	.252**	.187**	.371**	.268**
	유의확률 (양측)	.000	.000	.003	.000	.000
	N	250	250	250	250	250

** $p < .01$

리터러시에서의 격차가 결국은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서의 격차와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기기에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는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들과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기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스마트기기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사용하는 미디어의 다양성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r = .623, p < .01$)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와 이들 각각에 최적화된 미디어를 활용하는 집단에서는 필요한 미디어 기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필요한 미디어에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나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폭넓게 활용하는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와도 연관되어 있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사회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격차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은 사회적 활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가 되는 것은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 활용을 매개로 한 새로운 유형의 정보격차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 이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양한 형태의 수많은 정보가 폭증하는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으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미디어 활용 능력은 정보 입수 및 활용에서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사회적 격차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스마트 정보환경에서는 이러한 격차의 발생에 스마트기기의 이용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정도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4.3.1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의 접근성

정보기기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양적인 정보격차는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보급과 함께 해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왔다. 스마트기기의 보유는 스마트기기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스마트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스마트기기는 보유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기기의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많은 미디어 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 보유 및 접근성 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4〉 참조).

분석 결과,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한 경험은 스마트기기의 보유나 스마트기기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r=.000, p<.01$), 미디어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 역시 스마트기기의 보유와 접근성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005, p<.01$). 이러한 기기 중심의 측면 이외에도,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스마트기기의 보유와 접근성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026, p<.05$).

반면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 능력이나 활용하는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은 스마트기기의 보유

〈표 4〉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접근성 사이의 회귀분석

모형		계수a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화 오류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999	.251		3.980	.000
	미디어 다양성	.533	.069	.498	7.757	.000
	정보의 가치 평가	.176	.078	.147	2.247	.026
	콘텐츠 생산능력	-.096	.065	-.094	-1.464	.144
	콘텐츠 다양성	-.022	.061	-.023	-.369	.712
	기기 능숙도	.194	.068	.181	2.836	.005

a. 종속변수: 스마트기기 접근성

나 접근성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이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은 스마트기기로 인한 격차 발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2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스마트기기는 정보에 대한 접근, 정보 커뮤니티케이션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정보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스마트기기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정보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5> 참조).

분석 결과, 미디어 기기 이용의 능숙도를 제외한 모든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들은 사람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경험($r=.027, p<.05$) 이외에도, 미디어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r=.035, p<.05$)과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r=.000, p<.01$) 역시 사람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사람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사회활동에의 참여 등과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로이며,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적, 사회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표 5> 미디어 리터러시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사이의 회귀분석

모형		계수 ^a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241	.283		.852	.395
	미디어 다양성	.172	.077	.153	2.224	.027
	정보의 가치 평가	.188	.088	.149	2.126	.035
	콘텐츠 생산능력	.261	.074	.242	3.538	.000
	콘텐츠 다양성	.144	.068	.142	2.108	.036
	기기 능숙도	.068	.077	.060	.888	.376

a. 종속변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정보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커뮤니티의 공공의 이익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서의 격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좁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기반 정보격차와는 달리 온라인 상의 넓은 범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3 미디어 리터러시와 활동 범위 확장

현재의 정보환경에서 미디어의 활용은 사람들이 다양한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적, 사회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보적, 사회적 활동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수준 등에서의 격차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6〉 참조).

분석 결과, 사용하는 미디어의 다양성($r=.006, p<.01$)과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r=.021, p<.05$)은 사람들의 사회적, 정보적 활동 범위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미디어 혹은 정보기기가 다양한 것은 각각의 미디어가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다양한 형태로 생성되는 콘텐츠를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미디어 및 콘텐츠의 다양성은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 정보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r=.032, p<.05$)은 입수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이를 보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정보활동을 보다 폭넓게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용하는 미디어의 다양성, 콘텐츠 형태의 다양성, 정보의 가치를 평가

〈표 6〉 미디어 리터러시와 활동 범위 확장 사이의 회귀분석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1.949	.249		7.825	.000
	미디어 다양성	.189	.068	.204	2.777	.006
	정보의 가치 평가	.168	.078	.162	2.157	.032
	콘텐츠 생산능력	-.028	.065	-.032	-.432	.666
	콘텐츠 다양성	.140	.060	.167	2.319	.021
	기기 능숙도	.104	.068	.112	1.532	.127

a. 종속변수: 활동 범위 확장

하는 능력 등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보적,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3.4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기기 보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 측면이지만, 이는 미디어의 보유 혹은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디어 기기를 보유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미디어를 보유하는 것이 미디어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복합 미디어로서의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보유는 미디어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스마트기기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

시 요인 가운데 콘텐츠의 다양성만이 스마트기기의 보유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006, p<.01$). 현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생산 및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미디어 기기는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활용하는데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입수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높을수록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를 활용하게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정보의 내적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나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 등 미디어의 내적, 질적인 측면은 스마트기기의 보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결국 스마트기기의 보유는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하는 양적인 정보격차와 관련된 것이며, 정보가 지닌 지적인 측면의 활용에 대해서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보다는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었

<표 7>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기기 보유 사이의 회귀분석

계수a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1.099	.316		3.480	.001
	미디어 다양성	.129	.087	.114	1.491	.137
	정보의 가치 평가	.176	.099	.139	1.781	.076
	콘텐츠 생산능력	.006	.082	.005	.072	.943
	콘텐츠 다양성	.210	.076	.207	2.756	.006
	기기 능숙도	.074	.086	.065	.856	.393

a. 종속변수: 스마트기기 보유

다. 즉,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급 및 스마트기기의 보편화는 양적인 정보격차보다는 진화한 정보격차로서의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5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플리케이션 이용
현재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정보활동은 대부분 스마트기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이 스마트기기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8〉 참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활용은 스마트기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000, p<.01$).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 뱅킹,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 참여, 공유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 최적화된 정보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정보 유형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미디어 리터러시의 대부분의 요인들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스마트기기의 어플리케이션은 정보의 입수와 활용 측면에 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회적, 정보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기기의 활용은 사람들의 사회적, 정보적 활동에 있어서의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인 가운데,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 경험과 미디어 기기 사용의 능숙함, 정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 요인 가운데 스마트기기의 접근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형성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

〈표 8〉 미디어 리터러시와 어플리케이션 이용 사이의 회귀분석

모형		계수a			t	유의확률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화 오류	베타		
1	(상수)	.451	.456		.989	.324
	미디어 다양성	.191	.125	.119	1.529	.127
	정보의 가치 평가	.147	.143	.081	1.028	.305
	콘텐츠 생산능력	-.127	.119	-.083	-1.071	.285
	콘텐츠 다양성	.425	.110	.293	3.856	.000
	기기 능숙도	.073	.124	.045	.589	.557

a. 종속변수: 어플리케이션 활용 정도

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의 활용 이외에도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람들의 정보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기기를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보다 많은 정보적, 사회적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사용한 경험과 스마트기기를 통해 이용하는 콘텐츠 형식의 다양성은 사람들의 정보적, 사회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가치 평가 능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된 스마트기기의 활용이라는 지적인 측면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심화된 지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스마트기기의 보유와 접근성, 어플리케이션 활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 가운데 콘텐츠 유형의 다양성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기의 보유라는 양적 정보격차가 아닌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양적, 질적 정보격차가 아닌 지적 격차로서의 스마트 디바이드를 형성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로 사용되는 스마트기기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스마트 디바이드는 이전까지의 정보격차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 디바이드라는 보다 심화되고 다변화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 사이의 정보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5. 결론

정보기술의 급속한 진화 및 스마트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기존의 양적 정보격차와 질적 정보격차는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합적인 미디어 기기로서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세분화되고 다면화하는 정보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양적 정보격차나 질적 정보격차에서는 미디어 기기의 소유와 접근을 위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중심이 되었지만, 스마트 디바이드에서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뿐만 아니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는지가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요인들이 스마트 디바이드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이드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기기를 통해 입수한 정보의 내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다양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따라서 미디어 기기의 활용을 기반으로 한 지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스마트기기의 활용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다변화된 정보적 격차이며, 이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스마트 디바이드는 정보의 지적인 활용이라는 공통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의 정도는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들은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정보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이것이 정보를 활용하는 범위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형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고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

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의 활용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정보적,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적,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보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스마트기기의 활용으로 인한 보다 심화된 격차와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기기의 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된 스마트기기의 활용이라는 지적인 측면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기의 보유와 같은 양적인 정보격차가 아닌 정보의 지적, 내재적 측면과 관련된 스마트 디바이드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드는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이를 통한 가치의 창출 능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격차이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확보한 사람들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정보활동이나 사회적 네트워크의 구축 등에서의 참여 기회를 보다 많이 누릴 수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스마트기기 중심의 정보환경에서는 수많은 정보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접근, 입수, 활용되고 있으며, 이제 스마트기기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정보적, 사회적 도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기기 활용의 이면에는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정보가 어

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전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과 직결된 미디어 리터러시의 확보에서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보적인 차원에서의 격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인 스마트 디바이드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기기 기반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새로운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스마트 디바이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으나, 스마트기기 환경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기기 중심의 정보환경에서의 정보적, 사회적 격차를 발생시키는 다변화하는 요인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기기의 보유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것을 우리의 다양한 활동에 연결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활용능력 교육이나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같은 양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함양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 고 문 헌

- 이승민 (2020). 정보격차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적 정보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91-114.
<http://doi.org/10.16981/kliss.51.1.202003.91>
- 주윤경 (2018). 지능정보사회와 정보불평등. KISO Journal, 33, 33-37.
- Attewell, P. (2001). The first and second digital divides. *Sociology of Education*, 74, 252-259.
<http://doi.org/10.2307/2673277>
- Aufderheide, P. & Firestone, C. M. (1993). *Media literacy: A report of the national leadership conference on media literacy*. Queenstown, MD: The Aspen Institute Wye Center.
- Baker, F. (2004). To kill a mockingbird: Seeing the film through the lens of film language and media literacy. *Screen Education*, 37, 162-165.
- Choudrie, J., Weerakkody, V., & Jones, S. (2005). Realising e-government in the UK: Rural and urban challenges. *Journal of Enterprise Information Management*, 18(5), 568-585.
<http://doi.org/10.1108/17410390510624016>
- Correia, A. M. R. (2002). *Information literacy for an active and effective citizenship*. White Paper prepared for UNESCO, the U.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and the 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 Retrieved from

-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jsessionid=0F8381312F34D9DAF62B70E34139CEC0?doi=10.1.1.109.262&rep=rep1&type=pdf>
- Dewan, S. & Riggins, F. J. (2005). The digital divide: Curren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6(12), 298-337.
- European Association for Viewers' Interests (EAVI) (2009). Study assessment criteria for media literacy levels. Final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Belgium: EAVI.
- Gilster, P. (1997). *Digital literacy*. New York, NY: Wiley.
- Hallaq, T. (2016). Evaluating online media literacy in higher education: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digital online media literacy assessment.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8(1), 62-84.
- Helbig, N., Gil-Garcia, J. R., & Ferro, R. (2009). Understanding the complexity of electronic government: Implications from the digital divide literatur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6(1), 89-97. <http://doi.org/10.1016/j.giq.2008.05.004>
- Hobbs, R. (2007). *Reading the media: Media literacy in high school English*.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Houston, R. D. & Erdelez, S. (2004). The digital divide: Who really benefits from the proposed solutions for closing the gap.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13(1), 19-33. <http://doi.org/10.3172/JIE.13.1.19>
- Keniston, K. (2004). Introduction: The four digital divides. In Keniston, K. & Kumar, D., eds, *IT experience in India: Bridging the digital divide*. New Delhi: Sage Publications.
- Kling, R. (1998). Technological and social access on compu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te Paper for Presidential Advisory Committee on High-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xt Generation Internet. Retrieved from <http://rkcsi.indiana.edu/archive/kling/pubs/NGI.htm>
- Lee, S. (2016). Smart divide: Paradigm shift in digital divide in South Korea.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8(3), 260-268. <http://doi.org/10.1177/0961000614558079>
- Li, R., Chen, K., & Wu, D. (202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ping with the smart divide in rural america.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10(2), 559-570. <http://doi.org/10.1080/24694452.2019.1694402>
- Molnar, S. (2002). Explanation frame of the digital divide issue. *Information Society*, 4, 102-118.
- National Association for Media Literacy Education (NAMLE) (2011). Core principles of media literac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Retrieved from <https://namle.net/wp-content/uploads/2020/09/Namle-Core-Principles-of-MLE-in-the->

United-States.pd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1).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49. Paris: OECD Publishing.

Park, E. & Lee, S. (2015). Multidimensionality: Redefining the digital divide in the smartphone era. *Info*, 17(2), 80-96. <http://doi.org/10.1080/24694452.2019.1694402>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P21) (2002). Learning for the 21st century: A report and mile guide for 21st century skills. Washington, DC: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Retrieved from https://deg.dk/fileadmin/2._Aktuelt/1._Fokus/Udsynsforum/21_century_skills.pdf

Potter, W. J. (2010). The state of media literacy.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54(4), 675-696. <https://doi.org/10.1080/08838151.2011.521462>

Ritchie, A. L. (2011). Media literacy standard implementation in Florida perceptions of high school principals and language arts curriculum leaders. Doctoral Dissertation.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Rooksby, E., Weckert, J., & Lucas, R. (2002). The rural digital divide, rural society. *Rural Society*, 12(3), 197-210. <http://doi.org/10.5172/rsj.12.3.197>

Van Dijk, J. A. G. M. (2005). The deepening divide: Inequal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London, UK: Sage Publications.

Wei, K., Teo, H., Chan, H. C., & Tan, B. C. Y. (2010). Conceptualizing and testing a social cognitive model of the digital divid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1), 170-187. <http://doi.org/10.1287/isre.1090.0273>

<p>•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p>
--

Ju, Y. (2018).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and information inequality. *KISO Journal*, 33, 33-37.

Lee, S. (2020). Paradigm shift of digital divide and intellectual digital divid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91-114. <http://doi.org/10.16981/kliss.51.1.202003.91>